

# 종교방송 뉴스가 不法방송이라고?

##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 발표... BBS 등 종교방송 포함

20여 년을 넘게 한국 사회 전반을 취재 보도했던 BBS 불교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구랍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방송사는 BBS 불교방송 등 지상파 종교방송 4곳과 케이블 경제·종교 방송사 13곳 등 총 17곳이다.

BBS 불교방송은 '박경수의 아침저녁'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 이 불법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적됐다.

개신교 방송인 CBS는 '저녁 종합뉴스' '낮 종합뉴스' '시사저녁' '정관음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 등 이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천주교 평화방송(PBC)의 '뉴스와 세상'과 원음방송(WBS)의 'WBS 뉴스'도 범법에 걸렸다.

방통위가 종교방송들의 보도프로그램에 문제를 삼은 법적 근거는 방

통법 시행령 제50조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방송이나 교통방송 등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 보도를 할 수 없는 데도 '앵커·뉴스·기자' 등 명칭을 이용한 뉴스 형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20여 년 이상을 취재 일선에서 질곡의 현대를 취재 보도한 종교방송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양모 BBS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25년 동안 공정하게 방송하며 국민 여론을 이끌어 왔는데 방통위의 이런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발표된 사안이라 더욱더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 유사보도 지적된 종교 방송 프로그램 목록

구분	세부구분	유사보도 프로그램
지상파 방송	종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녁〉,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상 BBS), 〈CBS 저녁종합뉴스〉, 〈CBS 낮종합뉴스〉, 〈시사저녁 정관음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이상 CBS), PBC의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CBS TV의 〈CBS 교계뉴스〉, 복지TV의 〈WBC뉴스〉, CTS TV의 〈CTS 뉴스〉
등록채널(PP)		CBS TV의 〈CBS 교계뉴스〉, 복지TV의 〈WBC뉴스〉, CTS TV의 〈CTS 뉴스〉

### 방송법 등 근거해 불법 규정

### 20년 보도관행... 법 개정해야

### 언론노조·PD연합회 등 반발

### BBS "유사보도 물이 안될 일"

불교방송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종교방송사와 연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방송의 역사성과 제도도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방안 마련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 이를 계기로 종교방송 등이 뉴스채널의 뉴스채널 방송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와 방송인 단체들의 반

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방통위가 CBS, 뉴스타파 등에 대해 '유사보도' 운 운하며 애써 불법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을 향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라며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에 어떻게든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보려는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은 지난 1년으로 족하다. 방통위의 '유사보도' 운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1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가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을 누구도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제도도가 일치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번 조사의 목적이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적 지위를 찾아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마치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면 방송을 그만두라는 식의 폭력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지적과 반발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요구가 있어 실태분석을 한 것"이라면서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규제 방침 등은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유사보도 문제는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사안이므로 해당 방송사업자와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 등을 고공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정혜숙 기자

## 2014 현대불교 말처럼 됩시다

불기 2558(2014)년 갑오년은 한국사회에도 불교계에도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창간 20주년을 맞아 '정문지필을 통한 불법홍포'라는 교계 언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짚고 뒤흔칩니다. 이를 위해 2014 신년부터는 한층 보강된 신년 연재가 시작됩니다.

### 불교와 전문 식견이 조화된 기획 연재

#### 탑의 진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성스러운 불탑. 불자들에게 탑은 부처님과 같은 것이다. 과거불시대부터 있었던 탑의 유래와 변천을 오래동안 불탑 연구에 진력해온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장을 맡고 있는 불탑사상연구회 우인보 회장이 풍부한 자료를 통해 전한다.

#### 만해의 길을 가다

올해는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충남 홍성 생가부터 성북동 심우정까지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스님의 생애를 통해 사상과 삶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비추본다.

#### 불교건축기행

현대 건축과 어울린 불교 건축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지면으로,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설명을 통해 불교건축의 의미를 심도있게 감상할 수 있다.

#### 불교로 읽는 古典

현재 한국은 '인문학 전성시대'다. 진정한 인문학 진흥은 전방위에 걸친 고전에 대한 등 독서와 탐구가 대중 안에 폭 넓게 저변화 되어야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고전 읽기로 새로운 안목을 열어보려 한다.

#### 한국의 구법승

부처님 법을 좇아 아무도 걸지 않은 길을 걸어간 구법승의 삶을 조명한다.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미지의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깨우쳐 간 그들의 모습을 21세기 격려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 붓다와 물리학

위오기 공주대 교수는 윤회를 중시시키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붓다가 설한 물질의 성질에 관한 궁극적인 실제의 세계를 살펴본다.

## 사찰 농지부담금 2년 한시 100% 감면

### 정부, 구랍 30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전통사찰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됐다.

정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통과한 데 이어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구 절대농지)는 농지보전을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의 적용기간은 정부의 방침을 적용해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전통사찰이 과도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사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령에 대해 조계종은 "감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통사찰의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의 보존과 활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삼량사 새해맞이 타종식 부산 삼량사(주지 무원)는 1월 1일 범종각 앞에서 '2014 새해 마음살림불사 소원기원 신년 맞이 타종식' 행사를 진행했다. 타종식 행사에서 무원 스님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나쁜 말과 행이 나오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며 "마음살림 불사를 통해 마음에 믿음을 뿌리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佛法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연재

####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불교계의 원로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인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통해 우리네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군포교일기

2014년 젊은 군법사들에게서 새롭게 변화하는 군포교 일화를 들여본다.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 버금가는 재미를 선사하는 군법사들의 최전방 포교 리얼 스토리를 전한다.

#### 백몽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

수행단체 보림회를 만들어 수행 지도를 했던 김기추 거사의 법문록을 통해 허공과 불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산사에 깃든 선비의 시심

유교의 유명 선비들이 산사를 소재로 쓴 시와 그에 얽힌 절과 시대의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 대중 문화의 숨결이 있는 연재

#### 갤러리 색즉시공

희상 스님의 선화 에세이를 비롯해 불자들의 마음을 쉬게 해줄 불교적 예술작품들을 소개하는 지상 갤러리다. 부처님의 말씀을 꼭 경전을 통해 듣거나 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불법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Buddha in Comic & Ani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현대 문화 사업의 중추로 그 안에는 불교적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수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안에서 담긴 불교적 메시지가 읽어내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불법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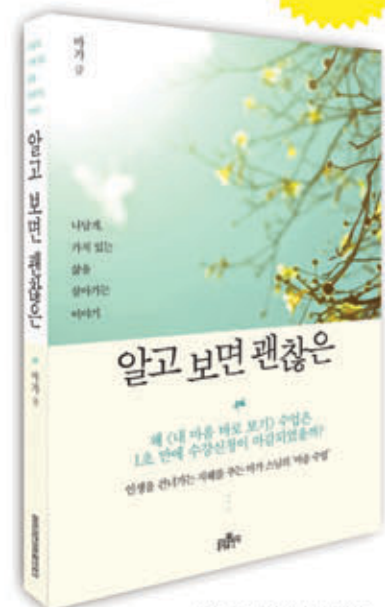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수업' '잡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그동안 니카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재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노릇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붓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카야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_서문 중에서



이미경 지음 | 248쪽 | 13,000원